"요플레 뚜껑? 핥아 먹어… 회장님은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 예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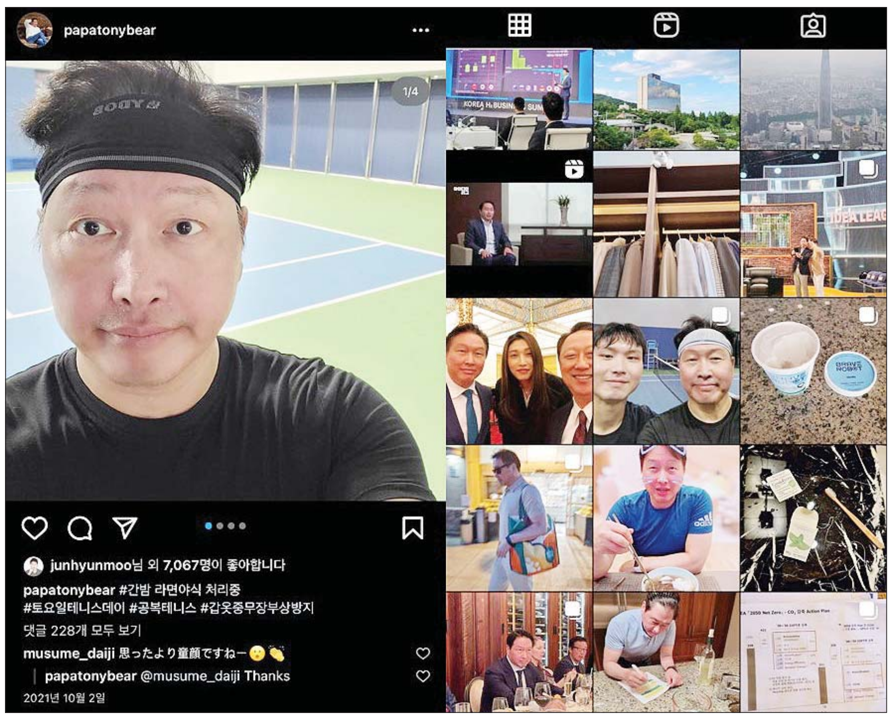
예능·유튜브 등 출연… 최태원, 격식 깬 입담으로 소통경영

〈대한상의·SK그룹 회장〉

'대기업 총수'의 파격행보

최 회장, 유튜브 '삼프로TV'서 "기업 인식 여전히 썩 좋지 않아 점수는 C정도… 기업 변화해야"

TV 예능프로그램 '식자회담' 출연 "식자단장으로 불러달라" 너스레도



/최태원 회장 개인 인스타그램 갈무리

격식깨는 소통경영을 이어가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SK그룹 회장의 행보가 화제다.

최 회장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대중들과의 소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다양한 소·대규모 오프라인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유쾌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대기업총수는 접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깻다"며 건강한 지표라고 반응하는 국민들과 이를 통해 국내 다양한 기업들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업계 평도 나온다.

1년간 대중행사 100회 이상 참여 대기업 총수 보수적 이미지 깨고 개인의 입장 객관적 해석·전달

"자유 분위기 속 오너생각 듣고 서스럼 없는 대화, 보기에 좋아" 시청자 반응 폭발… 변화 기대

◆유튜브 출연 '각종 라면 다 먹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태원 회장은 재계 총수 최초로 지난 9일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의 패널로 출연했다. 해당 채널에서 최 회장은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 계획, 대한상의 회장으로의 외부활동, 재벌회장은 라면을 먹나, 재벌회장의 일과 등 국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개인적인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최회장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유쾌한 대답을 이어나가며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에 현재 해당 채널은 조회수 53만을 훌쩍 넘어 가고 있다.

채널에 따르면 재벌 총수도 라면을 먹냐는 질문에 최회장은 "각 종 라면은 다 먹는다. (MC를 보며)먹는 건 나랑 같을 텐데.."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썩 좋지 않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성이 떨어지고 사회공헌이 부족하다는 등이다. 점수로는 C 정도 될듯. 실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직을 수락한 배경에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런활동을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신비함에만 갇혀 있다보면 소통부족으로 오해가 생긴다. 지난 7만 명의 국민들과 소통했다.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외 MC가 단촐하게 왔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직원들이 많이 동행한 것에 대해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호탕하게 웃었다. 그에 MC는 사과하겠다며 유쾌한 상황도 연출됐다.

채널을 접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최 회장 특유의 유쾌하면서 직설적인 대답과 기업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해당 채널의 댓글에 따르면 "상공회의소 대표 자격으로 나왔지만, CEO가 나오는건 정말 건강한 지표인듯", " 재계 2위 총수가 나와서 서스럼 없이 대화한다는거 자체가 보기 좋네여" 등 1만 4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요플레 뚜껑? '당연히 핥아'

최회장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TV 예능프로그램 출연, 개인 인스타그램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TV 예능프로그램인 '식자회담'에 출연해 본인을 MC 보다는 '식자 단장'으로 불러달라는 등 익살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식자회담 방송에 따르면 최 회장은 MC 욕심이 있느냐는 전현무의 질문에 "욕심을 내 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달리더라"며 "나는 '맵찔이'다"는 등의 B급언어도 활용했다.

최 회장은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대중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무례한 질문이지만 회장님도 혹시 요플레 뚜껑 핥아 드시나요?"라는 댓글에 최회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회장님은 몇 시간 주무시나? 회장님들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난다는데…"에 "예외도 있지요"라는 재치있는 답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꼰대가 되지 않는 법" 등을 언급하며 MZ세대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최 회장의 이같은 행보가 자발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총수의 이같은 변화를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향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모든 것은 최회장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들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도 이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태풍 왜 못피했냐고?… 포스코, 정부 책임론에 '난감'

상황실 운영 등 대비에도 침수피해 포스코 "침수원인, 냉천 범람 때문 압연라인 등 피해규모 추산 어려워"

정부, TF조사단 꾸려 사태파악 "철강산업 피해, 굉장히 심각 공급망 안전 확보위해 조사 나서"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2일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배수와 진흙제거 작업이 한창인 전기강판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태풍으로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유례없는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포스코는 정상 가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가 왜 일어났는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태풍 피해를 피하지 못한것과 관련해 책임론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1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2일 모든 고로가 정상 가동에 돌입하고, 제강공정도 복구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만큼 향후 '압연공정 복구집중 체제'로 전환해 압연공정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0일 3고로, 12일에는 4고로와 2고로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했고, 일부 제강공정 가동으로 철강반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제철소 내 모든 공장의 전기 공급은 이르면 다음주말쯤 가능할 전망이다.

냉천 인근에 위치해 침수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압연라인은 여전히 배수 및 진흙 제거 작업이 진행중이다. 금일 0시 기준 배수 작업은 94%, 전원 투입은 37% 진행된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침수의 원인은 인근 냉천의 범람 때문"이라며 "이에 범람 인근에 위치한 압연라인의 침수 피해가 가장 크며, 현재까지 피해규모도 추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압연라인의 경우, 공장 바닥과 지하 시설물에 누적된 토사, 뻘, 오염물 제거를 중점 실시 중이며, 동시에 정비 인력을 집중 투입해 설비 세척, 건조, 부품 수리·교체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유압탱크, 감속기, 변압기, 전기모터 등 긴급 발주가 필요한 품목들을 공장별로 일일이 파악중이며, 설비공급사들과는 핵심설비 점검을 위한 국내외 기술전문가 파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9월 6일 상륙이 예보된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8월 31일부터 '태풍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6일 하루 모든 조업을 중단하는 한편 배수로 정비, 물막이 작업, 안전시설물 점검 등에 나선바 있다. 6일에는 포항제철소 공장장 이상 임직원들이 태풍종합상황실 및 각 공장에서 비상 대기를 하며 태풍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5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전 6시경 냉천이 범람했고 이후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포항제철소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이후 7시경 태풍종합상황실도 전기, 통신, 물 공급이 끊기는 등 제철소 모든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담당 이주협 부소장은 "공장 1층에서 밤새 비상 대기를 하던 중 오전 6시20분경 냉천 범람으로 공장 전체에 갑자기 물이 들어차 근무중이던 3명의 직원과 함께 긴급하게 2층으로 대피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냉천 바닥준설, 불필요한 구조물 제거 등 하천을 재정비해 물길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냉천 범람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태풍, 폭우 등에 대비한 냉천 재정비를 위해 포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중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태풍에 따른 포항 철강산업의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철강재 생산 정상화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산업부가 직접 조사단을 꾸린 배경에는 포스코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이번 침수 피해가 왜 일어났는지도 포함됐다. 장영진 차관은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따져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예고된 재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양성운 기자 ysw@

›› 1면 'JY의 결단'서 계속

탄소포집연구소 설립 저장·재활용 기술 상용화 반도체 시설에 적용키로

우선 DX 부문이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DS부문을 포함한 전사가 2050년을 목표로 삼아 최대한 조기 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100에 가입하는 것도 이 일환이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도 활용한다. DS 부문은 지난해 9월 종합기술원에 '탄소포집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설립하고 현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장 및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2030년 이후 반도체 제조시설에 적용해 전사와 협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이 반도체 업계 탄소 배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며 산업 전체의 친환경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에너지 효율 제고 기술을 적용해 사용되면서도 전력량을 최소화하며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도록 했다.

반도체는 공정 미세화와 초전력 기술 등을 확보해 원자재 사용 최소화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모바일 기기 등 전력 소비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세트 제품들도 저전력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부품을 통해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평균 30% 사용량을 개선하게 된다.

삼성전자 제품은 폐기된 후에도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돼 '자원 순환 체제'를 만들게 된다.

/김재웅 기자 juk@